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의 개념과 그 유형

박 승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단어는 우리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5페이지)

우리 말을 우리 인민의 감정과 요구에 맞게 더욱 풍부히 발전시키자면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뿌리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말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뿌리들 가운데는 말하는 사람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는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 말에서 명사는 량적으로 품사들 중 제일 우위를 차지할뿐 아니라 고유어말뿌리 총 개수에서도 량적으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우리 말의 량적풍부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란 임의의 품사에 속하는 단어를 형태부로 갈라보았을 때 명사적성격을 가지는 고유어말뿌리를 말한다.

이때 명사적성격을 가진다는것은 명사가 가지는 기본특성인 명명성 즉 대상이나 성질, 상태 등에 대한 명명적특성을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는 전체 고유어말뿌리에서 명사적성격을 가지는 말뿌리로서 《고유어명사의 말뿌리》와 구별해 보아야 한다.

《고유어명사의 말뿌리》는 고유어명사를 형태부로 갈랐을 때 나오는 말뿌리라는 말이다.

실례로 고유어명사인 《자리다툼》을 형태부로 분석하면 말뿌리 《자리》, 《다투(다)》와 뒤불이 《ㅁ》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자리》, 《다투(다)》는 다 고유어명사

의 말뿌리라고 할수 있다.

그중 《자리》는 명사적말뿌리이고 《다투(다)》는 동사적말뿌리이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는 명사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동사, 형용사, 부사에도 있다.

실례로 동사 《일하다》의 형태부를 분석하면 말뿌리 《일》과 《하(다)》로 갈라지는데 이때 《일》은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이다.

형용사 《답답하다, 부지런하다》도 형태부를 분석하면 말뿌리 《하(다)》와 《답답》, 《부지런》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답답》과 《부지런》은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이다.

부사 《걱정스레》도 형태부를 가르면 말뿌리 《걱정》과 뒤불이 《스레》로 갈라지는데 이때 《걱정》은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이다.

이와 같이 고유어명사적말뿌리는 《고유어명사의 말뿌리》와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는 자립성의 측면에서 크게 두가지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무엇보다먼저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이 있다.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는 문장에서 자립적인 단어로 쓰일수 있는 말뿌리이다.

다시말하여 필요한 토가 붙어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관계를 나타낼수 있는 말뿌리를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라고 한다.

실례로 《앞》, 《뒤》, 《물》, 《낮》, 《대꾸》, 《뵈》 등은 모두 하나의 말뿌리로 이루어진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이다.

이러한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을 몇가지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우선

아무런 변화도 입지 않고 하나의 순수한 형태부로 이루어진 말뿌리들이 속한다.

실례로 《가게》, 《값》, 《거울》 등이 있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가게》는 《① 자그마한 규모로 물건을 벌려놓고 파는 집(가게를 열다). ② 림시로 장이나 길거리에서 물건을 벌려놓고 파는 곳(장거리의 한구석에 벌려놓은 가게에서 군밤을 팔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순수한 말뿌리로서 사전에서 《벌가게, 반찬가게, 포묵가게, 피물가게, 나무가게, 난가게, 팔죽가게, 가게문, 잡화가게, 가게방, 가게집, 가게일, …》등 30개의 명사들을 합성한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값》도 《①=가격(값을 매기다). ② 물건을 팔고살 때에 주고받는 돈(값을 물다). ③ 어떤 사물이 지니고있는 중요성이나 의의(값이 있는 일). ④(사람이나 사물의)쓸모나 역할(나이값을 하다), …》등의 뜻을 가진 하나의 순수한 말뿌리로서 사전에서 《방울값, 값전자, 값지다, 고기값, 구경값, 극값, 계산값, 돈값, 몸값, 사람값, 상대값, 수학적기대값, …》등 139개의 명사, 형용사들을 합성한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거울》도 《① 빛을 반사시켜 사람의 모습이나 물체의 모양이 비치도록 만든 물건(손거울). ② 따르고 본받아야 할 본보기나 교훈(교원은 학생들의 거울이다). ③ 사상감정의 움직임이나 사물의 옳고그름을 가려보는 기준이나 수단(마음의 거울).》등의 뜻을 가진 하나의 순수한 말뿌리로서 사전에서 《거울결개, 거울반사, 거울집, 검사거울, 구리거울, 립체거울, 목거울, 삼면거울, 나무거울, 낫거울, 음향거울, 은거울, …》등 48개의 명사들을 합성한다.

이처럼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가게, 값, 거울》등 아무런 변화도 입지 않고 하나의 순수한 형태부로 이루어진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이 있다.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또한

의미와 기능이 같으면서 발음상위치에 따라 어음적외피가 다르게 되고 표기상으로도 달라진 어음변종의 말뿌리들이 속한다.

실례로 《가마구》, 《구렁이》, 《강낭》 등이 있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가마구》는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까마귀》와 의미와 기능이 같지만 발음상위치에 따라 어음적외피가 다르게 되고 표기상으로도 달라져 사전에서 《갈가마귀, 산갈가마귀》등의 단어들을 합성한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구렁이》도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구렁이》와 의미와 기능이 똑같지만 표기상차이를 가지고 사전에서 《구렁이》는 《황구렁이, 능구렁이, 단너삼구렁이, 수구렁이, 암구렁이, 엽구렁이》등 6개의 단어를 합성하고 《구렁이》는 《바위왕구렁이, 먹구렁이, 터구렁이, 구렁이속, 독구렁이, 쑥구렁이, 복구렁이, …》등 16개의 단어들을 합성한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강낭》도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강냉이》와 의미와 기능이 똑같지만 표기상으로 달라져 사전에서 《강낭가루, 강낭국수, 강낭그루, 강낭기름, 강낭대, 강낭밭, 강낭끼우래기, 강낭겨, …》등 21개의 단어를 합성하고있다.

이처럼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가마구, 구렁이, 강낭》은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까마귀, 구렁이, 강냉이》와 의미와 기능이 같지만 발음상위치에 따라 어음적외피가 다르게 되고 표기상으로도 달라져 서로 다른 단어들을 합성하면서 우리 말 어휘의 풍부화에 이바지하고있다.

이와 같은 표기변종들을 같은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는것은 우리 말 단어조성수단의 구체적인 실태를 보여주며 언어교육실천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일이다.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또한 하나의 자립적인 단위로 굳어져 더는

가를수 없는 단어분화형태의 말뿌리들이 속한다.

실례로 《우물》, 《노래》 등이 있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우물》은 원래 샘터를 파낸 곳이라는 뜻으로 고유어명사적말뿌리 《움》과 《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때 《움》의 음운 《ㅁ》은 《물》의 음운 《ㅁ》과 어음적으로 같다. 발음에서 이어지면서 닮기에 의한 줄이기로서 앞형태부가 변화되며 그것이 철자법에도 반영되고 결국 형태부로서의 어음적자립성이 약화되면서 하나의 말뿌리로 되었다.

이것은 단어 《머칠》을 원래는 말뿌리 《뗏》과 《일》의 합친말이지만 하나의 말뿌리로 보는것과 같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 《노래》도 동사 《놀(다)》의 말뿌리 《놀》에 뒤불이 《~애》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파생어로서 이 두형태부가 하나로 유착되어 굳어진 말뿌리이다.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다음으로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이 있다.

실례로 단어 《섭섭하다, 섭섭히, 미안섭섭하다, 시원섭섭하다》의 형태부 《섭섭》은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이다.

이것은 단어 《답답증, 답답히, 답답하니, 하답답하다, 마구답답이, 답답하다, 답답이》의 말뿌리 《답답》을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는것과 같다.

그러나 고유어명사적말뿌리 《답답》은 자립적인 말뿌리로 사전에 올라있지만 《섭섭》은 자립적인 말뿌리로 올라있지 않다.

그러므로 《섭섭》과 같은 말뿌리들을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았다.

이러한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도 몇가지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우선 본래의 말뿌리에서 형태가 약간 변한 말뿌리들이 속한다.

실례로 단어 《쌍가풀》의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가풀》, 단어 《겨우내, 겨우살이¹》의 고유어명사적말뿌리《겨우》등이 있다.

단어 《쌍가풀, 쌍가풀눈》의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가풀》은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까풀》의 형태가 약간 변한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이다.

단어 《겨우내, 겨우살이¹》의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겨우》도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겨울》에서 음운 《ㄹ》가 생략된 형태변종의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이다.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또한 주로 명사말뿌리와 결합되는 덧붙이 《스럽, 덧, 쟁이, …》등과 결합되는 말뿌리들이 속한다.

실례로 《거북스럽다》에서 《거북》, 《버리쟁이》의 《버리》 등이 속한다.

뒤불이 《~스럽》은 《(일부 명사적인 말뿌리에 붙어) 그러한 특성이 많이 있거나 그러한 특성이 꽤 있어보임.》을 나타낸다. 즉 뒤불이 《~스럽》은 단어 《행복스럽다, 영광스럽다, 복스럽다》와 같이 주로 명사말뿌리와 결합된다.

따라서 단어 《거북스럽다》의 형태부 《거북》도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아야 할것이다.

뒤불이 《~쟁이》는 《(일정한 명사의 말뿌리에 붙어서) 그것이 나타내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그와 관련되는 직업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을 나타낸다.

즉 단어 《익살쟁이, 양복쟁이, 석수쟁이, 대장쟁이, 심술쟁이, 덧쟁이, 안경쟁이, 수염쟁이》와 같이 일정한 명사말뿌리와 결합된다.

그러므로 단어 《버리쟁이》는 단어 《버르쟁이》의 말체로서 형태부 《버리》는 고유어명사적말뿌리 《버룻》과 의미와 기능이 같은 형태변종인 동시에 뒤불이 《~쟁이》

와 결합되는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아야 할것이다.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또한 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의 원형에는 없는 새로운 원형의 고유어명사적말뿌리들이 있다.

실례로 단어 《갹갹하다》의 《갹갹》, 단어 《툼툼하다》의 《툼툼》 등이 속한다.

단어 《갹갹하다》는 《(시원히 풀리거나 트이지 못하여) 안타깝게 답답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때 단어 《갹갹증, 갹갹궁금하다, 갹갹히》 등을 만드는 형태부 《갹갹》은 고유어명사적말뿌리 《답답》과 같이 성질, 상태에 대한 명명을 나타내므로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아야 할것이다.

단어 《툼툼하다》도 《(입맛이) 개운하거나 후련하거나 시원하지 않고 뿌드드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때 형태부 《툼툼》도 성질, 상태에 대한 명명의 뜻을 가지고 단어 《흐리툼툼, 흐리툼툼하다, 구리툼툼하다, 툼툼이, …》 등을 만들기때문에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아야 할것이다.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에는 또한 《지다, 없다, …》 등과 결합되어 동사,

형용사를 이루는 말뿌리들이 속한다.

실례로 《걸까리지다》의 《걸까리》, 《어주리없다》의 《어주리》 등이 속한다.

단어 《걸까리지다》는 《걸때가 크다》는 뜻을 가지면서 형태부 《걸까리》와 《지다》로 가를수 있다.

이때 형태부 《걸까리》는 《사람의 몸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유어명사적말뿌리 《걸때》와 약간의 형태가 차이날뿐 의미와 기능이 비슷하기때문에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아야 할것이다.

단어 《어주리없다》도 《엄청나게 미약하고 실속이 없다.》는 뜻을 가지면서 형태부를 가르면 형태부 《어주리》와 《없(다)》로 갈라지는데 이때 《어주리》는 《실속》이라는 뜻을 가진 비자립적인 고유어명사적말뿌리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처럼 고유어명사적말뿌리는 다른 품사적말뿌리들에 비하여 고유어말뿌리 총 개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뿐아니라 다양한 부류를 이루면서 우리 말의 풍부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어의 형태부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조선어의 단어조성체계를 더욱 체계화함으로써 우리 말의 우수성을 더욱 살려나가야 할것이다.